

‘浮休子’를 내세운 成俔의 말하기와 그 의미

— 「浮休子傳」과 『浮休子談論』을 중심으로 —

황 아 영*

<目次>

- | | |
|-----------------|-----------------------|
| I. 문제제기 | III. 浮休子를 내세운 成俔의 말하기 |
| II. 成俔과 浮休子の 관계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본고는 성현이 부휴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말하고 있는 「浮休子傳」과 『浮休子談論』을 중심으로 부휴자의 말하기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현은 자탁전의 형식을 가진 부휴자전에서 부휴자의 성품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그려내었다. 그리고 寓言의 형식을 갖춘 『부휴자담론』은 이야기 방식에 따라 雅言, 「寓言, 補言 3가지 양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양식마다 부휴자와 허구 인물, 역사인물을 등장 시킴으로써 현실문제에 대한 직설적인 화법을 피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성현이 자신을 드러내어 직접 말하지 않고 부휴자라는 인물을 내세워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임금에 대한 강한 勸戒와 諷刺임을 알 수 있다. 부휴자를 통해 이전의 훈구관각파가 주장한 ‘임금은 하늘이다’라는 의견을 따르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임금은 다만 백성을 위한 하늘의 대리자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렇게 간접화법을 통해 말함으로써 자신을 드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ahyoungh20@naver.com

러내어 말하는 데에 따르는 화를 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성현은 표면적으로 ‘재주와 능력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듯하지만 결국 ‘능력과 재주는 타고나는 것이며 쉽게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훈구관각파와 도학 사림과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편도 아닌 중간자적 입장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현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직접 말하기 어려운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강한 자궁심을 간접적으로라도 드러내기 위하여 부휴자라는 인물을 통해 주장을 펼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제어】 성현, 부휴자전, 부휴자담론, 권계, 풍자, 자궁심

I. 문제제기

‘浮休子’는 虛白堂 成俔(1439~1504)의 호이다. 성현은 조선 초 명문거족의 집안에서 태어나 李穡(1328~1396) 이후 權近(1352~1409), 卞季良(1369~1430), 徐居正(1420~1488), 姜希孟(1424~1483)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에 의해 주도된 시대를 마감했던 당대의 거장으로서, 文·史·晔은 물론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관심을 89권이나 되는 저서로 남겼으며 조선 전기 館閣文學의 문학 사상을 집성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현의 다방면에 걸친 관심과 많은 저서만큼 지금까지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부휴자’라는 가상의 허구적인 인물을 화자로 내세워 말하고 있는 「浮休子傳」과 『浮休子談論』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소략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휴자전」은 ‘自傳’에 관한 연구¹⁾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져 왔고, 『부휴자담론』은 단독 저서임에도 불구하고 성현의 문학관이나 문학론 연구에서 주요 대상으

1) 안병렬, 「조선전기 전 작품 연구」, 『한문학논집』 12, 근역한문학회, 1994, pp.447-477.

로 다루어져 연구된 적이 없다. 『부휴자담론』을 주제로 하여 연구된 기존 논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종묵²⁾에 의해 처음으로 『부휴자담론』이 자세하게 연구되었다. 한국 문학사에서 薛聰의 「花王戒」 이래 간헐적으로 제작 되어온 寓言이 성현의 『부휴자담론』에 이르러 대량으로 작품화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부휴자담론』의 「寓言」을 분석, 우언 양식의 전형을 밝히고 그 양식적 특질을 규명하였다.

장진숙³⁾은 『부휴자담론』을 조선전기 사대부의 ‘정치적 글쓰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부휴자담론』의 「우언」을 당대의 정치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현의 정치적 지향을 분석하였다. 또 정치적 화법이라는 입장에서 우언의 수사적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주재우⁴⁾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양식인 우언에 주목하여 성현의 『부휴자담론』의 우언을 중심으로 설득 표현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았다.

윤승준⁵⁾은 『부휴자담론』에 보이는 君主와 臣僚에 대한 논의와 형상을 통해 성현의 君臣論을 재구해 보았다.

이 외에 우언의 관점에서 『부휴자담론』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권석환⁶⁾과 정연봉⁷⁾의 논문이 있다.

본고에서는 성현이 ‘부휴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화자로 내세워 말하고

-
- 2) 이종묵, 「『부휴자담론』과 우언의 양식적 특성」, 『고전문학연구』 제5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pp.187-211.
 - 3) 장진숙, 「『부휴자담론』에 나타난 성현의 정치적 지향과 우언의 화법」, 『어문연구』 제35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pp.405-429.
 - 4) 주재우, 「고전표현론의 관점에서 본 우언문학교육-성현의 『부휴자담론』 우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교육』 1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pp.291-316.
 - 5) 윤승준, 「『부휴자담론』을 통해 본 성현의 군신론」, 『동아시아고대학』 제17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8, pp.263-294.
 - 6) 권석환, 「한중 우언의 동질성에 관한 연구-『애자잡설』, 『옥리자』, 『부휴자담론』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29, 한국중어중문학회, 2001.
 - 7) 정연봉, 「한국 한문 우언론-우언의 원류와 양식적 특성에 관한 일 고찰」, 『우리어문연구』 22, 우리어문학회, 2004.

있는 「부휴자전」과 『부휴자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부휴자담론』은 담론 방식에 따라 「雅言」, 「寓言」, 「補言」 3가지 양식으로 분류되어 각각 2권씩 총 6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양식별로 말하기 방식이 다르고 다양한 화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부휴자담론』의 제목으로만 보자면 위에서 언급한 6권 1책이 전부 성현, 곧 부휴자의 말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부휴자’를 내세운 이야기들이 그 안에 또 존재하므로 성현이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부휴자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추려내어 살펴보기로 한다.

「아언」은 권1, 권2에 걸쳐 총 40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부휴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는 2권의 19번째 이야기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언」은 거의 ‘부휴자’의 이야기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언」은 권3, 권4에 걸쳐 총 37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우언」에는 허구적인 이야기가 많은 만큼 등장인물들도 허구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 중 부휴자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3권의 4번째, 5번째, 10번째 이야기이다. 「보언」은 권5, 권6에 걸쳐 총 32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보언」은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를 차지하므로 부휴자가 화자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보언」은 이번 연구에서는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본고는 위에서 밝힌 연구범위에서 성현이 직접 화자로 나서지 않은 이유와 부휴자를 내세워 말하고자 하는 내용 및 의미를 알아보려고 한다.

II. 浮休子와 成覩의 관계

1. 「浮休子傳」

성현의 「부휴자전」은 『虛白堂文集』 권 13, ‘傳’에 실려 있는 세 편의

전 중 하나로 托傳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넓은 의미의 ‘전’은 인물의 행적을 기술한 것이고, 하위 갈래는 관점에 따라 그 양상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徐師曾이 『文體明辨』에서 전을 史傳·家傳·托傳·假傳으로 분류한 것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

그 중 ‘탁전’이란 작가의 심회, 사상, 취미, 인생관, 치세관 등을 제 3의 인물에 가탁하여 서술하는 전의 일종으로, 어떤 사상의 인물에 작자 자신을 은유한 자전적인 自托傳과 가상 또는 실제 인물의 특성에 작자의 사상, 치세관, 주장 등을 우의한 意托傳이 있다. 자탁전의 시초이자 대표작품으로 陶潛의 「五柳先生傳」이 있으며, 의탁전의 대표작품으로는 柳宗元の 「種樹郭橐駝傳」이 있다. 성현은 객체인 가상의 인물명을 작자 자신의 自號로 나타내고, 작자 자신의 행적보다는 자신을 객관화하여 그 심회를 조명하는 「오류선생전」의 글쓰기 방식을 사용하여 「부휴자전」을 지었다.⁸⁾

「부휴자전」은 ‘或者’와 ‘浮休子’의 대화를 통해 전개되며, 내용은 부휴자의 성격, 독서 태도, 시 짓기, 거문고 타기, 山水探勝, 修己之道, 自號에 대한 변론, 贊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휴자전」의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浮休子是 靑坡居士의 자호이다.⁹⁾

보통의 인물전에는 첫머리에 ‘성’, ‘명’, ‘자’, ‘본적’의 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고정된 스타일이지만 「부휴자전」에서는 대상 인물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부휴자’가 ‘청파거사’의 자호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렇게 첫머리에서 대상 인물의 성명과 본관을 일부러 들지 않으면서 애매하게 표현하며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는 글쓰기 방식은 「오류선생전」형 자전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그렇다면 청파거사

8) 조수학, 『한국의 托傳과 假傳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7, p.43.

9) 成倪 『虛白堂文集』 卷13, 「浮休子傳」, “浮休子者, 靑坡居士之自號也.”

는 누구이며, ‘부휴자’의 뜻은 무엇인가? ‘청과거사’는 어린 시절 龍山區 靑坡洞에서 자란 성현 자신을 가리킨다. ‘청과거사’가 ‘靑坡’의 호를 가진 李陸(1438~1498)¹¹⁾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유는 성현과 비슷한 시기의 인물로 성현과 교류하였다는 기록이 『慵齋叢話』에 보이며¹²⁾, 성현 문집인 『허백당집』에 「부휴자전」이 실려 있고, 『虛白堂先生文戴成公行狀』에 『부휴자담론』 6권이 있다는 金安國의 기록¹³⁾에 따라 부휴자는 곧 성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호를 ‘부휴자’로 한 이유는 「부휴자전」 끝에 밝혀 놓았는데, “살아서 세상에 우거한다는 것은 등등 뜬 것[浮]과 같고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휴식하는 것[休]과 같다. …… 등등 떠서 산다 해서 무슨 영광이며, 휴식하는 것처럼 죽는다 해서 무엇이 슬프겠는가.”¹⁴⁾라고 밝히고 있다.

성현은 첫머리에 이어 부휴자[청과거사]의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거사는 솔직하여 꾸밈새가 없으며 순수하고 근엄하며 질박하고 곧아서 남에게 뇌물을 써서 벼슬아치와 결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권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환영하는 잔치나 송별하는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집안사람을 위해 생산 작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며, 소득이 있으면 풍성한 음식과 아름다운 의복도 넉넉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득이 없으면 추한 의복과 굶은 음식도 부족하

10) 가와이 코오조오 지음·심경호 옮김, 『중국의 자전문학』, 소명출판, 2002, pp.93-94.

11) 李陸(1438~1498, 자 放翁, 호 靑坡은 성현과 생몰연대가 비슷하고 실제로 청과동에서 이웃하며 교류하였던 인물이다. 주요 저서로는 『靑坡集』, 『靑坡劇談』, 『鐵城聯芳文集』이 있다. (홍순석, 『성현문학연구』, 한국문화사, 1992, p.40.)

12) 成倪, 『慵齋叢話』 2-31, “余少時與放翁相友善, 寓空家讀書”

13) 金安國, 『虛白堂集』, 「虛白堂先生文戴成公行狀」, “所著虛白堂詩集十五卷, 補集五卷, 文集十五卷, 風雅錄上下卷, 浮休子談論六卷, 奏議稗說六卷, 慵齋間話十二卷, 錦囊行跡四十三卷, 桑榆備覽四十卷, 經綸大軌五十餘卷, 未就而卒, 所撰風騷軌範三十卷行于世, 其他命撰諸書, 應製篇章稱是.”

14) 成倪, 『虛白堂文集』 卷13, 「浮休子傳」, “生而寓乎世也若浮, 死而去乎世也若休. …… 則浮亦何榮, 休亦何傷.”

게 여기지 아니하였다.¹⁵⁾

부휴자의 성격을 살펴보면 영리를 따지지 않고, 손실과 이익을 따지는 생각을 완전히 잊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세속적 가치관과 대치하여 살아가는 삶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세상의 특징인 탐욕과는 반대되는 성품임을 알 수 있다.

부휴자의 성품 다음으로 부휴자가 향유하는 즐거움(독서, 시 짓기, 거문고타기, 산수탐승)에 대하여 혹자의 기롱과 부휴자의 변론이 이어진다. 부휴자의 즐거움으로 기록된 것들은 화려하고 커다란 즐거움이라기 보다는 앞서 밝힌 성격에 맞게 소탈하고 소박한, 세상을 떠난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독서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자.

(거사는) 성질이 또 부지런하며 經史 보기를 좋아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迂闊함을 기롱하니, 거사는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우월한가. 내가 세상일에는 우월하되 學에는 우월하지 아니하고, 남 보기에는 우월하되 자신을 요리하는 데는 우월하지 않다. 경서를 읽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史書를 읽어서 사업에 베풀며, 이와 같이 지날 따름이다. 내가 참으로 우월한가.” 하였다.¹⁶⁾

부휴자는 독서를 좋아하였는데, 혹자가 그 우월함에 대해 기롱하였다. 우월하다는 말은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혹은 ‘주의가 부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뜻에 비추어 본다면, ‘독서에 우월하다’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학문을 수단으로 삼아 세간에서의 명성과 이익을 얻으려고 독서하지 않음’으로 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15) 成俔, 『虛白堂文集』 卷13, 「浮休子傳」, “居士惴惴無華, 純謹質直, 不通關節於人, 不立權勢之途, 不預樽酒迎送之會, 不營家人生產作業, 得之則豐飧美服, 不以爲有餘, 麤衣惡食, 不以爲不足.”

16) 成俔, 『虛白堂文集』 卷13, 「浮休子傳」, “性又多勤, 樂觀經史, 或譏其迂. 居士曰, 我其迂哉, 我則迂於世, 而不迂於學, 迂於人所見, 而不迂於身所謀. 讀于經以治其心, 讀于史以資諸事業, 如斯而已矣. 我其迂哉.”

두 번째로는 ‘독서 태도가 서적을 펼쳐 내키는 대로 읽고 깊숙이 파고들지 않음’¹⁷⁾으로 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어떠한 뜻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밝힌 부휴자의 성격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부휴자의 修己之道에 대한 변론이 이어진다.

어떤 사람이 몸 닦는 도를 물으니, 거사는 말하기를, “담담하여 아무런 경영도 없고 공평하여 사정도 없고 궁해도 불만이 없고 곤해도 주린 빛이 없으며, 한가하여 생각도 없고 수고로움도 없고 자유로워 칭찬도 없고 허물도 없고, 방황하여 욕심도 없고 정도 없고, 希夷하여 옳음도 없고 그림도 없고, 황홀하여 形도 없고 象도 없이 하면 거의 도에 달하여 至人の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였다.¹⁸⁾

부휴자는 영리를 따지지 않고, 손실과 이익을 따지는 생각은 완전히 잊었으며 물질이 없는 평온한 심정을 중시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옳음이나 그림도 없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거나 집착하는 바가 없다면 至人の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세속의 인물들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부휴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생활의 공적인 면은 일체 기술하지 않고 독서, 시, 거문고, 산수탐승과 같은 사적인 즐거움인 생활의 구체적 측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적 상황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표현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내고 더 나아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찬을 살펴보자.

17) 앞서 「부휴자전」이 「오류선생전」의 양식을 따랐다고 하였는데, 「오류선생전」에서도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성품에 관한 설명을 한 이후 바로 독서의 태도에 대해 밝히며, “깊숙한 데까지 파고들지는 않았다[好讀書, 不求甚解]”라고 하였다. (카와이 코오조오 지음·심경호 옮김, 앞의 책, pp.97-99.)

18) 成倪, 『虛白堂文集』 卷13, 「浮休子傳」, “或問修己之道, 居士曰, 澹而無營, 泊而無私, 窮而無歎, 困而無餒, 逍遙乎無思無勞, 優遊乎無譽無尤, 彷徨乎無欲無情, 希夷乎無是無非, 惚恍乎無形無象, 如此則幾乎道, 而入至人之域矣.”

어느 사람이 혀를 내두르고 눈을 번득이며 달아났다. 이에 贊을 짓기를,

山之高累群蟻而極乎天 산의 높음이여 못 언덕을 포개서 하늘에 다다르고
水之深集衆流而成乎淵 물의 깊음이여 여러 가닥을 모아서 못을 이루고
先生之道聚諸善而成大全 선생의 도여 모든 선을 합해서 대전을 이뤘도다.¹⁹⁾

산이 높고 물이 깊음 같이 선생의 도는 모든 선을 합하여 대전을 이루었다는 부분에서 강한 자긍심이 엿보인다. 곧 세상의 기준은 잇고, 개인의 즐거움을 즐기는데 열심이며, 누가 뭐라고 기롱하여도 자신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至人の 영역에 이르렀음에 자긍하고 있는 성현의 모습이다. 세상의 이익에서 멀리 떨어진 자의 불만이나 반항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으로 부휴자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성현은 부휴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더 나아가 ‘부휴자’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는 이상과 바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浮休子談論』

『부휴자담론』은 ‘부휴자’라는 사람의 이야기와 의론이라는 뜻으로, 앞에서 밝힌 성현의 분신인 부휴자의 정치 철학적 견해를 밝힌 책이다. 「아언」 2권, 「우언」 2권, 「보언」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부휴자’와 ‘허구적 인물’, ‘역사적 인물’을 등장 시켜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의견인 듯 꾸며 놓으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었으므로 우언의 양식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우언」 부분은 조선 초기의 우언 문학을 대표할 만큼 높이 평가되고 있다.

19) 成俔, 『虛白堂文集』 卷13, 「浮休子傳」, “或呿舌眴目而走. 乃作贊曰, 山之高, 累群蟻而極乎天. 水之深, 集衆流而成乎淵. 先生之道, 聚諸善而成大全.”

‘우언’이라는 용어는 『莊子』 「寓言」 편에서 유래 하였다. 장자의 ‘우언’은 오늘날의 문학양식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장자』 卣篇의 기본적인 담화 방식을 총칭하는 三言(寓言, 重言, 卮言) 가운데 하나를 일컫는 용어로, “열 중 아홉을 차지하는 우언은 다른 것을 빌려서 논하는 것이다.[寓言十九, 藉外論之]”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설명하기를,

아버지가 제 자식의 중매인이 되지 않음은 아버지가 자식을 칭찬하는 일이 아버지 아닌 남이 칭찬함만 못하기 때문이다. (우언을 쓰는 것은) 내 죄가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이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과 같으면 따르고 다르면 반대하며, 자기 생각과 같으면 옳다 하고, 다르면 잘못이라 한다.²⁰⁾

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우언은 담화 방식의 하나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가탁하여 우회적으로 말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²¹⁾ 성현은 「부휴자전」에서도 밝힌 바 있듯 평소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벼슬에 있으면서 바른 말을 많이 하였던 인물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부휴자담론』은 우언의 양식을 빌림으로써 현실문제에 대한 직설적인 발언에 의한 화를 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부휴자담론』의 「아언」, 「우언」, 「보언」 세 가지 양식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아언’은 『論語』 「述而」, “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에 출처를 두고 있는 용어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있다. 고금의 논어 주해서들을 종합해보면, ‘아언’에 대하여 ‘正言[바른 말] 또는 正音[바른 음]’과 ‘常言[늘 하는 말]’, ‘夏言[공용어]’ 세 가지 풀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²²⁾ 그리고 『부휴자담론』의 ‘아언’에 대해서 이종묵²³⁾은 ‘당시 중

20) 안동립 역주, 『莊子』, 현암사, 1973, p.678, “親父不爲其子媒. 親父譽之, 不若非其父者也. 非吾罪也, 人之罪也. 與己同則應, 不與己同則反. 同於己爲是之, 異於己爲非之.”

21) 양승민, 『우언의 서사문법과 담론양상』, 학고방, 2008, p.37.

국에 통행되고 있는 말[夏言]이라는 뜻으로 직설적이고도 합리적인 언술을 뜻한다고 하였고, 홍순석²⁴⁾은 ‘바른말[正言]’ 또는 ‘평소에 하는 말[常言]’이란 뜻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부휴자담론』 자체가 우언의 양식을 빌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언’을 ‘바른 말[正言]’로 풀이하고자 한다. 곧 우언의 양식을 빌려 말하는 부휴자의 ‘바른 말’이라고 본 것이다.

「아언」의 대부분은 이야기 주체가 부휴자로 되어 있다. 어떠한 상황이나 허구적인 이야기를 통해 말하기 보다는 “浮休子曰”이라는 어구를 서두에 사용하여 직설적으로 부휴자[성현]의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내용은 주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임금과 신하의 관계, 신하된 자의 도리, 인재등용에 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언’은 ‘우의(寓意)를 지닌 말’이다. 부휴자[성현]가 직접 말하기 보다는 서사적인 상황이나 이야기를 꾸밈으로써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부휴자’가 직접 등장하기보다 허구적으로 설정된 인물들의 등장 이 아언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부휴자는 「우언」의 이야기 37개 중 6개에만 등장한다. 이때에도 이야기 후반부에 나타나 허구 인물들의 질문에 답하는 정도로만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언’의 허구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면서 허구 인물들만 등장하는 이야기에 비해 ‘부휴자’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주로 임금의 실정에 비판하는 내용으로 조금 더 강한 비판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보언’은 ‘보충해서 하는 말’이라는 뜻이다. 『左傳』, 『史記』, 『列女傳』 등의 책자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에 역사 인물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를 보충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휴자가 적극적으로 등장하여 의견을 드러낸

22) ‘아언’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양세욱·전유용, 「아언은 춘추전국 시대 공용어인가?」, 『중국어문학논집』 48,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에 잘 나와 있다.

23) 성현 지음·이종목 옮김, 『부휴자담론』, 홍익출판사, 2002, p.340.

24) 성현 지음·홍순석 옮김, 『부휴자담론』, 지만지, 2008, p.10.

「아언」이나 부분적으로라도 등장하는 「우언」에 비해 「보언」에서는 부휴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휴자[성현]가 직접 드러나지 않음으로 해서 돌아올 위험이 적어졌기 때문인지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강도는 더욱 강하게 드러내었다. 이야기의 대부분이 역사적 인물의 간언을 듣지 않고 계속 실정을 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부휴자는 「아언」, 「우언」, 「보언」 세 가지 양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형식 혹은 기준에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임금의 治國之道와 신하로서의 임무,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 失政 비판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성현이 직접 하기에는 위험하지만 부휴자라는 인물, 혹은 허구적 인물, 역사적 인물의 입을 통해서라도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었다.

Ⅲ. 浮休子를 내세운 成俔의 말하기

1. 임금에 대한 강한 勸戒

성현은 2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이후 6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중앙정계의 벼슬을 두루 역임한 인물로 그만큼 오랜 관직생활을 거치면서 정치에 관한 생각들을 ‘頌’과 ‘論’, ‘說’의 형식으로 남겨 놓았다.²⁵⁾ 그런데도 다시 ‘頌’과 ‘論’, ‘說’의 형식이 아닌 우언의 형식을 사용하고, 부휴자의 입을 빌리면서까지 이야기 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마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직접 말하지 못하는 내용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25) 최혜미는 성현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으로서의 세계상을 표상하기 위해 ‘頌’의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보수적 이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論說’의 형식을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최혜미, 「허백당 성현 산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먼저 『부휴자담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아언」 1권의 첫 번째 이야기를 보도록 하자.

(가) 부휴자가 말하였다.

① “임금은 하늘과 같다. 그 높기가 더할 데 없고 그 존귀하기가 짝이 없으며 그 크기가 끝이 없고 그 넓기가 한이 없다. 신이로운 변화는 헤아릴 수 없고 강력하고 건장함은 쉽다. 해와 달이 사물을 밝히듯이 성덕이 빛나고, 비와 이슬이 만물을 적시듯이 은택이 널리 베풀어지며, 바람과 서리가 초목을 꺾듯이 형벌이 엄하고, 우레와 벼락이 진동하듯이 위엄을 떨친다. 봄에 만물이 소생하고 가을에 만물이 시드는 것처럼 상과 벌이 드러나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쉬는 것처럼起居가 절도에 맞는다.

② 임금은 하늘과 같다. 임금이 하는 바는 하늘이 하는 바를 본받지 않음이 없다. 임금이 덕이 편안함을 잃어 허물이 있게 되면, 해와 달에 일식과 월식의 변고가 생기게 되고 눈과 비에 가뭄과 홍수의 탈이 생기게 되며, 폭풍이나 서리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때 아닌 우레가 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임금이 된 자는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바른길을 따라야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되고, 항상된 마음을 가져야지 뜻이 흔들려서는 안되며, 한 마음을 가져야지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되고 하늘과 백성을 공경해야지 오만하게 대해서는 안된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상서롭지 못하고 하늘을 업신여기면 복이 없어진다. 상서로움과 복이 없으면 하루라도 임금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²⁶⁾

부휴자는 (가)인용문의 ①부분에서 임금의 높음과 존귀함, 크기와 넓

26) 成俔, 『浮休子談論』, 「雅言」 1-1, “浮休子曰, 君猶天也. 其高無上也, 其尊無對也, 其大無極也, 其廣無涯也. 神變之不測也, 強健而不息也. 日月以明之, 盛德光輝也. 雨露以濡之, 恩澤普施也. 風霜以摧之, 刑斷肅殺也. 雷電以震之, 威靈動盪也. 春生秋殺, 賞罰昌也. 晝作夜息, 與居節也. 君猶天也. 君之所爲, 無非法天之所爲也. 君德失寧而過差, 則日月有遭蝕之變, 雨露有旱澇之愆, 風霜有災, 雷出非時也. 是故, 王者順天之令, 莅吾之民, 可若而不可愆也, 可常而不可忒也, 可一而不可二也, 可敬而不可慢也. 違天不祥, 慢天無福, 不祥無福, 不能一日居天位也.” 해석은 이종묵(성현 지음·이종묵 옮김, 『부휴자담론』, 홍익출판사, 2002.)의 해석을 따랐다.

이, 신이로운 변화와 강력하고 건장함에 대해 말하면서 하늘과 임금의 같다고 보고 매우 절대적인 존재로 높이고 있다. 이는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임금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가)인용문의 ②부분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다. 하늘과 같은 임금이지만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바른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임금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도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君主의 恐懼修省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임금의 절대적 위치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나)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끌어주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신하가 임금을 이끌고 벗이 벗을 이끄는 것이 이리하다. 밝은 것으로 밝은 것을 이끌면 밝은 것이 더욱 밝아져 환해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뛰어난 신하들인 臯陶, 稷, 契와 성군인 요순과의 관계가 이와 같다.²⁷⁾

(다) 하늘은 이치를 가지고 임금에게 맡기는 것에 불과하다. (중략)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로는 임금보다 더 심한 이가 없으므로 백성들은 반드시 하늘로 임금을 경계시키는 것이다. 성군인 湯王과 武王이 흥한 것은 하늘이 흥하게 한 것이요, 폭군인 桀 임금과 紂 임금이 망한 것은 하늘이 망하게 한 것이다.²⁸⁾

(라) 임금된 자는 하늘의 변고를 두려워하여야 하지만 사람의 변고를 더욱 두려워하여야 한다. 덕을 닦아 정치를 바르게 고치고 中正의 도리를 세워 하늘의 복을 받들게 되면, 아름다운 징조가 절로 이를 것이요, 음양이 조화롭고 비바람이 알맞고 오곡이 무르익어 백성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그 상서로움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²⁹⁾

27) 成俔, 『浮休子談論』, 「雅言」 1-9, “人之所以爲人, 在乎導之而已. 臣之導君, 友之導友, 皆是也. 以明導明, 則明益明, 而無不照, 臯陶稷契之於堯舜也.”

28) 成俔, 『浮休子談論』, 「雅言」 1-2, “天不過以理付之人主而已. …… 畏天者, 莫大於人主, 故下人必以天戒君. 湯武興者, 天興之也, 桀紂亡也, 天亡之也. ……”

29) 成俔, 『浮休子談論』, 「雅言」 1-12, “爲人上者, 畏天變, 而尤畏人變, 修德改政, 建大中, 以承天休, 則休徵自至, 陰陽和, 而風雨順, 五穀登, 而人民育, 其爲祥

(마) 하늘의 귀는 매우 높은 데 있지만 인간에게는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天機는 알기 어렵지만 인간에게는 하늘의 힘을 훔치는 일이 있다. (중략) 임금의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변하고 화가 복으로 바뀐다. 하늘은 사람이 하는 일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사람이 또한 반드시 하늘에 의지해야 하니, 하늘과 사람이 자연히 서로 조화롭게 된다. 한 번쯤 일어나는 홍수 및 가뭄의 재앙이나, 한 번쯤 五行의 순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찌 근심할 바가 되겠는가?³⁰⁾

인용문 (나)는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물론 임금이 신하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만, 어떠한 신하가 어떻게 인도하는가에 따라 임금의 治國도 달라짐을 전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다. 인용문 (다)~(마)는 임금은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이고, 하늘을 움직이는 자는 백성임을 말하고 있다. 성군과 폭군이 되는 것은 백성의 뜻을 따라 하늘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백성을 잘 다스리면 아름다운 징조가 자연히 이르고, 재앙도 상서로움으로 바뀐다고 하고 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에 비하면 어찌다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나 재앙은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까지 하였다.

이처럼 같은 『부휴자담론』에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인용문 (가)에서 말한 君의 위치(君=天)와 (나)~(마)에서 말하는 君의 위치(民>臣下>君)는 너무나도 다르게 보인다. 또 이러한 부휴자의 의견에 대한 해석은, 기존의 성현의 君臣觀에 관한 연구³¹⁾와 성현의 다른 기록³²⁾들과는 사뭇 반

瑞, 豈不大哉?”

- 30) 成俔, 『浮休子談論』, 「雅言」 2-5, “天聽甚高, 而人有回天之力. 天機雖宵, 而人有盜天之功. …… 人君苟能率德改行, 敬答天譴, 則災變爲祥, 禍轉爲福. 天不外於人, 人必賴乎天, 天人之間, 自然相協矣. 一雨暘之愆, 一五行之戾, 何足慮乎?”
- 31) 윤승준(앞의 논문, p.272.)은 성현이 성종과 연산군 시기의 군권과 신권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훈구 관료의 입장에서 유교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부휴자담론』을 저술하였다고 보았다.
- 32) 최혜미(앞의 논문 참조.)는 성현이 당대를 태평성대로 규정하고 변화보다 유지를 추구하는 보수적 이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을

대되는 해석으로 보인다. 성현 이전의 훈구세력들은 그 시기를 守成의 시대로 보고 그 시대의 낙관성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왕권을 찬양하고 盈滿함에 대해 경계하였다면, 성현은 이들과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부휴자담론』 제일 앞에 ‘왕은 하늘이다’라는 말을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이후로 나오는 부휴자의 의견들은 왕보다는 신하가 중요하며, 신하보다는 백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임금의 곧 하늘이지만, 하늘이 하는 바를 임금이 하는 것이고, 하늘은 이치를 가지고 임금에게 맡기는 것에 불과할 뿐, ‘인간은 하늘의 귀를 움직인다(아언 2-5)’ 혹은 ‘내 몸을 상하게 할지언정 백성을 해칠 수 없어 간언을 한다(우언 4-7)’라고 하여 곧 백성의 말을 신하가 듣고 간언하여 임금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부휴자담론』의 첫 번째 이야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의 입장을 달리한 것일까? 이는 『부휴자담론』이 지어질 당시의 시대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할 듯하다. 『부휴자담론』의 정확한 저작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성현의 만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³³⁾ 성현은 成宗(재위 1469-1494)의 문예 취향에 따라 성종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문학 활동의 측면에서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나³⁴⁾ 燕山君(재위 1494-1506)이 즉위한 이후로는 성현과 연산군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있게 되었다.³⁵⁾ 그리고 성현의 나이 60세에 戊午

바탕으로 신하와 임금의 역할을 규정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곧 보수 이념을 합리화하기 위해 ‘論’을 지었으며, 이러한 의식은 성현의 「曹參論」, 「絶纓論」, 「刑賞忠厚之至」, 「劉章論」, 「黑牛說」 등의 작품에 제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33) 홍순석, 『성현문학연구』, 한국문화사, 1992, p.68.

34) 최혜미(앞의 논문 참조)는 2장. 생애시기별 산문 개관에서 성현의 생애를 제1기 : 수학과 관계 입문(출생-31세), 제2기 : 중견관원기(32-44세), 제3기 : 외직기(45-50세), 제4기 : 전성기(51-59세), 제5기 : 황혼기(60-66세)로 나누어 살폈다.

35) 오춘택(「허백당성현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p.31.)은 1495년 燕山君이 즉위하고 당시 예조판서의 직위에 있던 성현은 연산군일기 첫

士禍(1498)가 발생하면서 그 이후로는 성현의 발언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³⁶⁾

그러나 성현은 『부휴자담론』의 많은 이야기에서도 밝혔듯 신하로서의 도리가 ‘간언’이라고 보았으므로³⁷⁾ 당시 상황은 간언을 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시정에 대한 탄핵을 주 임무로 하는 대사헌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신하로서의 임무를 다하고자 『부휴자담론』을 저술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하고 싶지만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부휴자라는 인물을 내세운 ‘우언’의 형식을 통해 말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우언은 허구적 세계에 가탁하여 인간의 모순과 불합리를 풍자하고 정서를 일깨우는 권계의 기능을 지녔다.³⁸⁾ 성현이 자신의 의견

머리에 맨 처음 啓를 올리는 신하로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성현과 연산군 사이의 은근한 대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朝鮮王朝實錄』, 燕山 1卷, 卽位年 12月 25日(庚辰) 4번째 기사, “禮曹判書成俔啓: “先朝舊例, 國恤七七日及大小祥, 皆設齋于佛寺. 然此不載禮文, 而大行大王, 亦不崇信佛教, 今將何以?” 世子使中官金孝江轉啓于王妃, 王妃傳曰: “大行大王, 雖不好佛, 然無遺教止之. 且祖宗朝皆行之, 今不可廢.” 俔以不當啓之事, 敢取稟, 世子不敢自斷, 轉啓王妃, 必以俔所啓爲不當而然也. 其卒行之者, 以其懿旨不敢違也. 俔與其兄任、侃, 皆有文名, 而頗惑釋教, 士林以此少之. 今觀俔所啓, 其家世佞佛, 蓋不誣矣.”)

- 36) 최혜미(앞의 논문 참조)는 성현이 자신의 나이 60-66세 시기에 간언을 거의 하지 않고, 하더라도 완곡한 방식으로 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고 보았다. 이 시기는 무오사화 이후로 삼사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정지되면서 대사헌을 맡았던 성현 역시 적극적인 간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37) 「아언」 1-9, 「우언」 4-7, 「보언」 5-6 등의 이야기에 간언의 중요함을 언급하였으며, 『허백당문집』 卷7, 「送西海韓都事序」에서도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재상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臺諫이 되어야 한다. 재상은 위에서 그 뜻을 행하고 대간은 아래에서 그 말을 행하여 항상 임금을 돕는 것으로 임무를 삼는다. 그러므로 대간의 품계는 낮지만 사람들이 모두 훌륭하게 여기는 것이다.[士生斯世, 不爲宰相, 必爲臺諫. 宰相行其志於上, 而臺諫行其言於下, 常以補袞爲任. 故諫官秩雖卑, 而人皆以爲華.]”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38) 양승민은 ‘초시대적’ 권계와 풍자성은 우언의 중요한 효용적 기능임을 인정하지만, 창작과 소통의 실상을 고려할 때 작자가 처한 당대 현실의 ‘삶의 정황’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고 하면서 성현의 『부휴자담론』, 「우언」을 그

을 허구에 가탁하거나 비유하거나 풍자할 필요 없이 직접 나서서 당당하게 피력할 수 있을 때엔 ‘논’이나 ‘설’의 문체를 사용하여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성현은 혹시나 글로 인한 화가 생길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우언’의 형식을 빌린 것이다. 또 성현은 이러한 화를 피할 방패 장치를 하나 더 설치하였다. 『부휴자담론』 제일 첫 부분인 ‘바른 말[正言]’이라는 뜻을 가진 ‘아언’ 부분의 첫 이야기로 ‘임금은 하늘과 같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성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른 말은 ‘임금≠하늘’이지만 ‘아언’이라는 부분에 포함시키면서 언뜻 보기엔 왕의 권위를 높이는 것처럼 한 것이다. ‘허구’와 ‘희작’, ‘풍자’와 ‘권계’의 특징을 가지는 ‘우언’이라는 장치를 통하면서 결국은 ‘임금=하늘’이라는 명제는 ‘임금≠하늘’이라는 속뜻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자기긍정과 정치적 입장 표명

앞에서 살폈듯이, 성현은 “임금은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또 신하의 간언을 잘 들어야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신하는 어떤 사람을 등용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 성현은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 중 재주와 자질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성현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丁生이 부휴자에게 물었다. “사람의 재능은 배워서 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부휴자가 말하였다. “그렇소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재능은 하늘로부터 품부 받은 것이어서 등

대표적인 경우로 들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양승민은 성현이 ‘초시대적 보편성-권계와 풍자’를 지니기 보다는 당시 지배이데올로기의 규범을 지향한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본고의 논지와는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양승민, 앞의 책, pp.146-148.)

급과 한계가 있습니다. 흉내 낸다고 비슷해질 수는 없습니다. 비단 글을 배우는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 활과 화살을 들면 반드시 정곡을 찌르고, 뛰어난 목수가 칼을 잡으면 마치 신들린 것과 같이 하여도, 밖으로 사람들에게 나무를 다듬거나 활을 쏘는 법을 가르치려 들면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교를 다 터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바둑이나 장기 같은 조그만 기예 일지라도 전심전력하여 뛰어난 자와 매일 함께 지내며 배우게 해도 일정한 한계에 이르르면 반드시 멈추어버려 그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습니다.”

부휴자가 대답하였다. “그대처럼 말하는 것은 사람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배움에 단계를 둔 것은 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하는 것을 유지하여 더 잘하게 하며,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도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기 위한 것이지요. 쉽 없이 노력한 후라면 高明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재질에 품계와 한계가 있어서 배워서도 능히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려 하겠지요. 그렇다면 누가 재능과 학문에 마음을 두겠소? 그대는 冶金하는 것을 보지 못했소? 쇠가 불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백 번 연마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품질이 더욱 강해지고 마침내 좋은 재질이 만들어집니다. 쇠도 그러하거든 사람의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성취하지 못할 리가 있겠소이까? 그대의 말은 지나친 것 같소이다.”³⁹⁾

(가)인용문은 재주가 배워서 잘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생과 부휴자의 대화이다. 재주는 배워서 될 수 있다고 하며 비록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특별히 성현만의 차이점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 조금 다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39) 成俔, 『浮休子談論』, 「雅言」 2-19, “丁生問於浮休子曰, 人才可學而能乎. 曰, 可. 曰, 不然, 人之才品稟, 受於天, 皆有區限, 不可擬而倫之也. 非獨學文也. 善射者, 持弓矢必正, 梓匠操刀如神, 外示人以規模指法, 而不能使學者得其巧. 至如博奕, 小數也, 雖專心致志, 日與能者而處之, 至其區限必止, 而不能過也. 曰, 如子之言, 則是杜人之爲善, 而不能進也. 聖人之設科也, 使能者守而裁之, 不能者, 企而及之, 努力不懈, 然後, 可至高明之域. 如曰, 人之才質有品, 非學所能變. 自棄而莫之爲, 則孰留心於才學也. 子不見冶金者乎. 金踊躍火中, 而經於百鍊, 則其質愈剛, 終成良器, 況勉勵人才? 豈有不成就者乎? 子之言過矣.”

(나) “사람의 재주와 그릇은 잘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농사꾼은 밭일을 잘 하지만 나라의 농사일을 관리하는 관리가 될 수 없고, 장사꾼은 시장 일에 정통하지만 나라의 장사 일을 관장하는 관리가 될 수는 없으며, 匠人은 그릇을 만드는데 뛰어나지만 나라의 그릇 만드는 일을 총괄하는 관리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은 각기 그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바꾸어 쓸 수는 없다는 말이다.”⁴⁰⁾

(다) “성을 열등하게 타고난 자는 비록 평생 능력 있는 사람의 곁에서 지켜보아도 비슷하게 본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하여 능력 있는 자는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아도 절로 하늘이 내린 공교로움이 생기니, 이 어찌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는가? 이 역시 다 天性에 달린 것이다. 성은 바꿀 수 없는데도 반드시 바꾸려고 한다면, 이는 오리의 짧은 다리를 길게 하고 학의 긴 다리를 짧게 바꾸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로 보건대 본연의 성은 변할 수 있지만 기질의 성은 변하기 어렵고, 비록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변화가 늘 일어나지는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¹⁾

(라) “큰 성인인 사람이 있고, 큰 현자가 있으며, 그 다음 현자가 있고, 군자라 부를 만한 사람이 있으며, 중간 정도의 재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고, 매우 우둔하여 개선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사람의 性は 같지 않은 법이다. 일 년을 설계하는 자도 있고, 한 달을 설계하는 자도 있으며, 하루를 설계하는 자도 있다. 또 하루를 설계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 이렇듯이 그 재능이 같지 않은 법이다.”⁴²⁾

40) 成倪, 『浮休子談論』, 「雅言」 1-10, “人之才器, 有能有不能, 農精於田, 而不可爲田師, 賈精於市, 而不可爲賈師, 工精於器, 而不可爲器師, 此言各抱其才, 而不可相用也.”

41) 成倪, 『浮休子談論』, 「雅言」 2-7, “性之拙者, 雖終歲旁觀於能者之側, 不能效其彷彿. 至於能者, 則不賴教, 而自然有天巧, 此豈學而能乎? 亦其天性也. 性不可變, 而必欲變之. 不幾於鳧脛之短, 而欲使之長, 鶴脛之長, 而欲使之短乎? 由此觀之, 則本然之性可變, 而氣質之性難變, 雖或有可變之人, 而其變不恒也.”

42) 成倪, 『浮休子談論』, 「雅言」 2-9, “有大聖者, 有大賢者, 有次賢者, 有君子者, 有中材者, 有庸人者, 有下愚不移者, 而人性不同焉, 有歲計者, 有月計者, 有日計者, 有不能日計者, 而其材不同焉.”

인용문(나)~(라)에서는 타고난 재주의 같지 않음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가)인용문의 정생의 주장과 같다. 부휴자는 (가)인용문에서 재주는 노력하면 크게 성취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지만, 더 많은 이야기에서 재주와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며, 이는 바꿀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가)에서 하고 있는 부휴자의 이야기는 재주 없는(능력 없는) 사람들을 향한 위안의 대답일 뿐, 부휴자의 진짜 생각은 (나)~(라)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나)에서는 관리와 일반 백성의 구별, (다)에서는 능력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 (라)에서는 聖인과 어리석은 자의 구별을 보여줌으로써 임금은 어떠한 인물을 등용하여야 하는 가를 밝히고 있다. 결국은 배우거나 익혀서 얻은 재주가 아닌 타고난 재주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성현 스스로 능력과 재주를 태어날 때부터 갖추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 보인 기록이 여러 저술에 보이는 것⁴³⁾, 「부휴자전」에 나타난 자신에 대한 강한 자신감, 긍정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사교적이지도 않고 정치나 권력, 부의 축적에도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성현 자신은 타고난 재주와 능력을 지닌 인물이며, 자기 스스로에게 매우 만족하고 있다. 자신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그러한 출신이나 능력은 후천적으로 노력이나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은 결국 자신과 같은 인물을 더 돋보이게 하며, 임금이 이러한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다음은 자기 긍정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자신을 임금에게 피력하는 이야기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43) 홍순석은 성현의 가문의식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용재총화』 2-7, (“當今門閥之盛，廣州李氏爲最，其次莫如我成氏.”), 용재총화 巨族姓氏 명단, 외가의 성세를 정리한 기록, 「昌寧成氏族譜序」, 「題江原道監司先生案後」,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을 들었다. (홍순석, 「허백당 성현의 문학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p.13-14.)

(마) 東郭先生은 청렴한 것으로 조정에 명성이 났다. 이 때문에 임금이 中牟郡을 다스리는 일을 맡게 하였다. 선생이 고을에 있는 3년 동안 사사로운 손님을 받지 않아 조그마한 뇌물도 횡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 집 사람조차 술지게미를 먹어야 하는데도 마을의 관리들은 육류를 먹는 일을 지저워하였고, 하인들이 문지방을 넘어서지도 않는데 부역과 세금 때문에 온 동네가 소란스러웠다. 창고는 나날이 비어가고 관아는 나날이 피폐해져갔다. 손님이 이르러도 음식 이바지가 시원치 않아 손님들은 모두 불만을 토로하며 가버렸다. 이에 어떤 사람이 부후자에게 물었다. “동곽선생의 청렴함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는데도 고을을 다스리는 것이 나날이 형편없어지니 무엇 때문입니까?” 부후자가 말하였다. “이는 청렴함이 아닐세, 오히려 졸렬한 것이라네. 이른바 청렴이라 하는 것은 공경으로 마음을 잡고, 예의로 몸을 닦으며, 간소한 것으로 번거로운 것을 통제하고, 간략한 것으로 번다한 것을 복종시키며,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익을 입게 하지만 스스로는 관여하지 않고, 남들로 하여금 그 은택을 입게 하지만 자신의 것을 소비하지 않아야 할 따름인 것일세. 지금 동곽은 안으로 제 집안을 해치고 밖으로 다른 사람까지 해치고 있으니 이는 청렴한 것이 아니라 졸렬한 것이라네. 어찌 졸렬한 자와 함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⁴⁴⁾

(바) “명분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나아가려 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무리 지으려 한다. 나아가기에 힘쓰면 바탕을 잃어 성실하지 못하게 되고, 무리 짓기에 힘쓰면 관직에 임하여 청렴하지 못하게 된다. (중략) 명분을 다투는 자는 그저 명분만 좋아하지 그 실질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익을 다투는 자는 그저 그 이익만을 좋아하지 그것이 의로운 일인지는 생각지 않는다. (중략) 이 때문에 명분이라는 것은 실질의 찌꺼기일 뿐이요, 이익이라는 것은 의로움을 갹아먹는 해충일 뿐이다.”⁴⁵⁾

44) 成倪, 『浮休子談論』, 「寓言」 4-18, “東郭先生, 以廉介聞朝廷, 使任中牟郡. 先生在郡三年, 門不受私謁, 而苞苴不行, 然室人食糠粃, 而里胥厭芻豢, 嬖僕不踰闕, 而差科擾閭巷, 困庾日虛, 館宇日弊, 客至餼供不饒, 皆快恨而去. 人有問於浮休子曰: 東郭之賢無比, 而郡政日卑, 何歟?” 曰, “此非廉也, 乃拙也. 所謂廉者, 敬以持心, 禮以飾躬, 簡以御煩, 約以服衆, 使人蒙其利, 而已不與焉, 飲其澤而已不費焉耳. 今東郭內害家而外害人, 此非廉也, 乃拙也. 拙者其可與之共理民乎?”

45) 成倪, 『浮休子談論』, 「雅言」 1-15, “喜於名者, 必務進, 悅於利者, 必務聚. 務進, 則委質非誠也, 務聚, 則蒞官非廉也. …… 爭名者, 徒喜其名, 而不顧其實, 爭

인용문 (마)는 청렴하지만 경영 능력은 없는 동곽선생을 졸렬한 자라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곧 개인적인 도덕적 성품인 청렴이 곧 국가를 경영하는 자질이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당시 성현은 ‘개인적 도덕이 곧 국가 도덕의 근본이 된다’는 도학사림과의 도전에 직면한 상태였다. 이에 대하여 성현은 현실을 외면한 채 청렴이나 修身, 節概 등 개인적인 도덕적 성품에만 힘써 조정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재야의 사람들을 동곽선생 빗대어 이야기하며 자신의 입장(훈구관각파)을 ‘왕조 사업은 바로 경영능력이며, 이는 개별적 도덕심과는 별개이다’라고 밝히고 있다.⁴⁶⁾ 그렇다고 해서 인용문 (마)에 나타난 주장만 보고 성현이 훈구관각파의 입장에 서서 도학사림과만 비판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성현은 도학사림과 뿐만 아니라 명분과 이익만 좇는 훈구관각파도 비판하고 있음을 인용문 (바)에서 살필 수 있다.

인용문 (바)는 명분은 실질의 찌꺼기일 뿐이고, 이익은 의로움을 갹아 먹는 해충이라고 말하며 명분과 이익을 좇는 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성현 말년에 무오사화(1498)가 일어났던 점과 연관시켜 보면 명분을 앞세워 서로를 잡아 죽이고 베어내는 자들과, 이익을 좇아 의로운 일을 생각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명분보다는 실질을 추구하며,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인물은 결국 「부휴자전」에서 밝혔던 부휴자 자신임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다.

결국 성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옳음도 그름도 없는’, 세상의 훈구관각파나 도학사림과 어느 한 쪽도 아닌 자신, 곧 스스로 서 있는 부휴자인 것이다. 이전의 훈구관각 문인들은 ‘정치적 이상경의 현재화와 향유’

利者, 徒悅其利, 而不思其義 …… 故曰, 名者實之土苴也, 利者義之蠹賊也.”

46) 권석환은 부휴자가 ‘동곽선생’이야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기 계층의 정치적 입장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애자’ ‘육리자’와 동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애자, 육리자, 부휴자는 모두 각각의 시대 환경을 살았던 ‘지식인’의 전형이고, 중세지식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우환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권석환, 앞의 논문, p.388.)

라는 입장에서 君臣相遇는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 그것을 이루었음을 찬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⁴⁷⁾ 반해 성현은 君臣相遇가 당대에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화나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강조하며 임금의 올바른 정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성현이 조선왕조의 유교적 질서를 옹호하고 유지하는 당대 훈구관각 문인의 적통을 이었다는 이전의 연구들과는 다른 면모가 보인다. 성현의 현실은 훈구관각파의 뒤를 잇고 있으면서 도학사립파의 반대 입장에서 서 있지만, 꼭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나뉘지는 입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수성기의 훈구관각 문인들처럼 왕권을 찬양하며 보수 세력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지도 않았고, 도학사립파의 수신과 경술만을 따르지도 않았으며, 방외인처럼 혁신적이고 위협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펼치지도 못하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임무(간언)를 다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결국 성현이 「부휴자전」과 『부휴자담론』의 부휴자라는 인물을 내세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부휴자라는 인물과, 우언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부휴자를 내세운 성현의 말하기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성현의 분신인 부휴자가 등장하는 「부휴자전」과 『부휴자담론』을 중심으로 부휴자를 통해 말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의 문학세계를 더욱 깊이 알아보려고 하였다.

II절에서는 「부휴자전」과 『부휴자담론』에 나타난 부휴자와 성현의

47) 김남이, 「집현전 학사의 문학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관계를 살펴보았다. 「부휴자전」은 「오류선생전」의 유형을 따르고 있는 자탁전으로 부휴자의 인물됨과 부휴자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며 성현의 이상적 인간상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부휴자담론』은 우언의 형식을 가진 성현의 정치철학적 견해를 밝힌 책이다. 성현의 말년에 지어진 저작으로 추정되며, 당시 연산군 시절에 자신을 드러내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휴자라는 허구의 인물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혹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였다. 특히 『부휴자담론』은 「아언」, 「우언」, 「보언」의 세 양식으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아언」과 「우언」에서 부휴자가 직접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I절에서는 성현이 결국 부휴자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성현은 『부휴자담론』 제일 첫머리에 임금은 하늘과 같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임금의 지위는 그 자체로 인정받는 자리라기보다 백성을 위한 하늘의 대리자, 신하의 간언에 귀를 기울여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리임을 우언이라는 장치를 통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였다. 또 재주와 능력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출신이 우월함을 과시하면서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부휴자의 입을 통해 밝히고, 타고난 능력과 재주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을 통해서 결국은 임금이 자신과 같은 인물을 등용하여 정사를 잘 살펴야 함을 말하였다. 결국 성현은 자신의 분신인 부휴자를 통해 말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어 직접 말했을 때 따를 화는 피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부휴자를 내세운 말하기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이전까지의 연구에서 밝혀졌던 성현의 군신론과는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성현이 당대 훈구관각 문인의 적통을 이었으며 도학사림파의 반대 입장에서 있다고 하였지만, 꼭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나뉘지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성기의 훈구관각문인들처럼 왕권강화와 질서유지를 강조하지도 않고, 도학파의 수신과 경술을 강조하는 모습도

아닌 중간자적 입장으로,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경계하며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관리·학자로서의 임무(간언)를 다하고자 하는 과도기적 인물이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성현의 입장은 기존의 이분법적으로 편향되어 있던 성현 연구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參考 文獻>

- 成 倪, 『虛白堂文集』 권13, 경인문화사, 1990.
——, 『虛白堂集』 허백당행장, 경인문화사, 1990.
成倪 -著, · 남만성 譯, 『慵齋叢話』, 대양서적, 1978.
成倪 -著, · 이종목 譯, 『浮休子談論』, 흥익출판사, 2002.
成倪 -著, · 홍순석 譯, 『浮休子談論』, 지만지, 2008.
안동립 역주, 『莊子』, 현암사, 1973.
『朝鮮王朝實錄』
- 가와이 코오조오지음·심경호 옮김, 『중국의 자전문학』, 소명출판, 2002.
권석환, 「한중 우언의 동질성에 관한 연구-『애자잡설』, 『옥리자』, 『부휴자담론』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29, 한국중어중문학회, 2001.
김남이, 「집현전 학사의 문학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안병렬, 「조선전기 전 작품 연구」, 『한문학논집』 12, 근역한문학회, 1994.
양세욱·전유용, 「아언은 춘추전국시대 공용어인가?」, 『중국어문학논집』 48,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
양승민, 『우언의 서사문법과 담론양상』, 학고방, 2008.
오춘택, 「허백당성현연구」,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윤승준, 「『부휴자담론』을 통해 본 성현의 군신론」, 『동아시아고대학』 제17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8.
이종목, 「『부휴자담론』과 우언의 양식적 특성」, 『고전문학연구』 제5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 장진숙, 『『부휴자담론』에 나타난 성현의 정치적 지향과 우언의 화법』, 『어문연구』 제35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 정연봉, 「한국 한문 우언론-우언의 원류와 양식적 특성에 관한 일 고찰」, 『우리어문연구』 22, 우리어문학회, 2004.
- 조수학, 『한국의 托傳과 假傳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7.
- 주재우, 「고전표현론의 관점에서 본 우언문학교육-성현의 『부휴자담론』 우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교육』 1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 최혜미, 「허백당 성현 산문 연구」,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홍순석, 「허백당 성현의 문학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 『성현문학연구』, 한국문화사, 1992.

Abstract

*Sung Hyun's speaking and means by 'Bubyuja' in The story of Bubyuja
and Discussion of Bubyuja / Hwang, Ab-young**

This article scopes out a fictional character – Bubyuja's speaking and means in *The story of Bubyuja* and *Discussion of Bubyuja* written by Sung Hyun (1439-1504). Sung Hyun described Bubyuja, an ideal type of human character, with Bubyuja's personality and enjoyment in an autobiographical essay *The story of Bubyuja*. Meanwhile, *Discussion of Bubyuja* composed of three type of fascicles: 'Graceful Words', 'Foolish Words' and 'Complementary Words'. In *Discussion of Bubyuja*, fictional characters had appeared in each section so that contemporary issues had been described with indirect narrations, which purposed to escape punishments derived from direct and straightforward speaking.

In accordance with direct speaking from imaginary persona and bitter satire on society in *The story of Bubyuja* and *Discussion of Bubyuja*, Sung Hyun had sincere remonstrance and satire on a king. Sung Hyun seemed to conform a demand – 'The king is the Heaven'. However rather, Sung Hyun actually emphasized a king is a representative of the Heaven only for the public. In addition, Sung Hyun looked like to follow an assertion – 'Personal talent and ability are obtainable with learning', though Sung Hyun, in fact, highlighted one's natural ability inborn characterized as well as scarcely changed. On the other hand, Sung Hyun had stated a middle coursed view of political opinions without single-side-on stance. Eventually, Sung Hyun applied various speaking on a fictional character – Bubyuja. Then, Sung Hyun directly expressed

* Sungshin Women's Univ. / ahyoungh20@naver.com

meaning of his political opinions and self-esteem against contemporary social situations.

【Key words】 Sung Hyun, *The story of Bubyuja*, *Discussion of Bubyuja*, Remonstrance, Satire, Self-esteem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26일, 게재확정일 : 12월 9일